



#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 목표가 분명해야 성공한다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무엇을 하고 싶니?”

필자는 종종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묻는 질문을 하곤 한다. 이것은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쉽고 의례적으로 하는 말로 여겨질지 모르나 사실은 인생의 목표라는 커다란 과제를 향한 첫물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항상 선택을 강요받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럴 때 뭔가 확실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능률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발명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예를 들어 장화 하나를 개량하는 데에도 많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군은 생선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종일 장화를 신고 얼음 위를 걸어 다녀야 한다. 남이 보기에는 신나게 잘도 뛰어다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남모름 속사정이 있었다.

‘장화의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심하니 장화속에 계속 습기가 차는구나. 습기를 없앨 방법은 없을까?’

그는 무뎠음으로 엉망이 된 발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결국 습하지 않는 장화를 만드는 것이 그

의 목표가 된 것이다. 목표가 확실해지자 그는 곧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 장화에 통기구멍을 만든 것이다.

한편 똑같은 장화로 ○군은 다른 목표를 세웠다. 그는 멀치잡이 배를 타는 어부이기 때문에 허벅지까지 오는 긴 장화를 신어야 했다. 이것은 무릎을 굽히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도 목표를 정하고는 곧 무릎에 주름을 잡아 여유를 둔 장화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개량발명은 이렇게 해야 한다.



##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1)

위대한 발명가들의 업적을 이야기하다 보면 필자는 으레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아마 그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을거야. 대학의 교수 정도는 했겠지? 그렇게 훌륭한 발명을 하는 사람은 다 그런 학자들이잖아..”

왓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학자, 지식인으로 칭송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왓트는 대학의 교수도 아니고 연구소의 연구원도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보통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난한 수리공일 뿐이었다.

왓트는 요란스럽게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발명을 위해 살겠노라고 선언한 적도 없었다. 다만 착실히 기계를 고치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지식을 몸으로 터득해 나갔던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그의

발명에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왓트가 증기기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L씨가 만든 증기기관의 수리를 의뢰받고서부터였다. 그는 수리를 하는 동안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원통 속에 증기를 넣어 피스톤을 위로 올리고 다시 물을 부어 증기를 식히면 피스톤이 내려가는군. 훌륭하기는 하지만 매번 물을 부으려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닐텐데..”

이 의문은 점점 그를 생각의 늪 속으로 몰아넣었다.

“자동으로 냉각수를 넣을 방법은 없을까?”

결국 그는 모든 일을 팽개치고 증기기관에 매달렸다. 하루가 흐르고 일주일이 흐르고 한달이 흘렀다. 그 동안 그가 시도해 본 실험도 수백가지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로 물을 부을 것이 아니라 피스톤을 올릴 때 사용된 증기를 식히면 바로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 결과 탄생한 것이 증기를 물로 식히는 장치였다. 그는 이 아이디어 하나로 증기기관 발명가의 명성까지 모두 거머쥐었다. <王> **발특 9807**

